

# ‘교육 전면개편’ 광주시사관학교 7기 대장정 돌입

입교식 갖고 220명 8개월간 실천형 교육 산업현장 난제 해결 ‘고급과정’으로 혁신  
姜시장 “AI중심도시 광주 주인공 확산”

올해 교육 체계와 투자 구조를 전면 개편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의 요람 ‘광주AI사관학교’가 산업 현장에 선도할 융합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8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6일 진도 솔비치에서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사관학교 교장), 교육생 22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AI사관학교 제7기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AI사관학교 7기는 인공지능 산업의 질적 도약에 발맞춰 기술적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을 동시에 갖춘 ‘AI 고급 과정’으로 거듭난 첫 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교육 과정은 기존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교육생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구조를 혁신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6일 진도 솔비치에서 열린 ‘광주AI사관학교 7기 입교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 콘텐츠의 깊이와 지원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산업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고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AI 융

합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뒀다. 교육생들은 앞으로 8개월간 AI 모델 기획부터 개발, 검증,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

하며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경험하게 된다. 팀 별로 배치된 전담 멘토는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며 실전 감각 배양을

돕는다. 광주시는 교육생들이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강화했다. 교육 기간 내 생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타 지역 교육생을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조성했다.

수료 후에도 창업 시제품 개발 지원과 지역 기업 취업 때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교육-취업-창업-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성장 사다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2박3일간 진행되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장병탁 교장의 특강과 현직 전문가들의 취업 아카데미, 팀별 협업 경연 등 몰입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8개월의 여정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AI사관학교는 AI영재고, 암(Arm) 스킴 등과 함께 광주가 정성 들여 구축해 온 인재 양성 체계의 핵심”이라며 “예상이 늘어난 만큼 더욱 질 높고 깊이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러분이 기업,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을 통해 AI 중심도시를 만들어온 광주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리라 확신하며 광주는 늘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개교한 광주AI사관학교는 6년간 총 1천528명의 AI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최근 3-5기 수료생의 취·창업률이 76%에 달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AI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변은진기자

## HPV 무료접종 12세 男청소년까지 확대

전남도, 4가 백신 6개월 간격 2회 지원

전남도는 6일 “이날부터 2014년생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접종 확대는 기존 지원 대상인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 더해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HPV 감염 예방과 관련 질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HPV는 자궁경부암, 항문암, 구인두암, 생식기 사마귀 등 각종 암과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성별에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특히 감염되기 전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인 만큼 감염 노출 이전인 청소년기에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HPV 백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7개국을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시행되는 등 효과성과 안전성이 인정됐다.

2014년생 남성 청소년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4가 백신을 6개월 간격으로 총 2회 무료 접종받을 수 있다.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양시원기자

###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간편육수’ 중금속 조사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6일 “최근 사용량이 늘고 있는 복합조미식품(간편육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해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간편육수 제품의 유해 중금속 함량을 분석해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고형·액상의 간편육수 제품 약 70건을 수거해 납·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함량을 측정하고 위해지수 산출 등 위해성 평가를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간편육수는 식품 기준 및 규격상 중금속 기준이 별도로 설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주요 원료인 어류와 해조류는 해양 환경을 통해 중금속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변은진기자

## “곡성 가정마을서 전통·자연 체험하세요”

전남도, 5월 농촌체험마을 선정

떡메치기 등 체류형 코스 적합

전남도가 철쭉과 장미가 피어나는 5월을 맞아 곡성 고달면의 ‘가정마을’을 5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했다.

곡성 가정마을은 2002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시작 당시 전국 최초로 선정된 1세대 마을로 방문객에게 자연과 농업 체험을 통해 농촌의 가치와 공동체 문화를 알리고 있다.

가정마을에서는 전통 손두부 만들기, 떡메치기(사신), 도넛 만들기 등 먹거리 체험과 섬진강 변·은어·다슬기 잡기 체험, 계절별 농작물 수확 체험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봄에는 뒷산 산책로를 탐방하며 고사리를 채취하고 여름에는 복숭아 수확과 복숭아청 만들기를 즐길 수 있다. 가을에는 알밤·단감 수확을, 겨울에는 고추장 담그기를 통해 전통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일부 체험에서는 고사리, 대봉감, 복숭아, 배 등 수확한 농산물을 가져갈 수 있다.



수 있다. 마을 인근에는 섬진강 산책로와 함께 곡성세계장미축제, 곡성기차마을, 곡성전문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어 1박2일 이상 체류형 여행 코스로 적합하다.

특히 5월 열리는 곡성세계장미축제에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장미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어 연인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다. 곡성 가정마을은 소그룹과 단체 여행객을 위

한 4인실, 8인실, 20인실 등 숙박시설과 한옥펜션 독채를 운영하고 있다. 50명 이상의 단체 체험객에게는 지역 특산물과 신선한 농산물을 사용한 시골밥상을 제공한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곡성 가정마을은 전통과 자연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 건강검진

## 매일체크 ✓ 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

